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투어 후기

신청별(약학과 4학년)

공직 약사를 꿈꾸는 약대생이 적어진다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실제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투어 과정 중에서도 전반에 걸쳐 관련 이야기가 나왔으며, 이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계셨다. 즉, 거꾸로 생각하자면 최근의 약학대학 졸업생들은 이전에 비해 공직 약사로 진출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후배들은 선배로부터 공직 약사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때에 약대생을 대상으로 한 식약처 현장 투어는 공직 약사에 대한 정보를 선배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의도 가능하고 현장 투어도 한다는 점에서 뜻 깊고 소중한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전국 약대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투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을 비롯해 세 분의 국장님과 각 국을 소개하러 와 주신 사무관, 주무관님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행사였다. 투어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동안 짧게 진행되어 각 부서별 담당 업무를 자세히 소개해주시기 보다는 대략적인 업무 소개와 함께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이 길어져 시설 소개는 짧게 진행되었다.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3:20~13:30	10'	참석자 등록 및 일정 안내	행정동 205A
13:30~14:20	50'	식약처 업무 소개 * 식약처 홍보 동영상(5'), 의약품안전국(15'), 마약안전기획관(10'), 바이오생약국(10'), 평가원(10')	
14:20~14:40	20'	공직 약사 채용 안내(약무직, 보건연구직) * 인사계 협조	
14:40~14:50	10'	휴식 및 다과	
14:50~15:30	40'	직렬별 소개 인터뷰 및 질의-응답 * 약무직, 보건연구직	
15:30~15:35	5'	처장님 인사말씀	
15:35~15:40	5'	단체사진 촬영	
15:40~15:45	5'	이동(행정동→평가원)	
15:45~16:45	60'	평가원 등 시설 소개 * 첨단분석센터(15'), 실험동물자원과(35'), 브리핑실(10')	평가원 및 연구심사동
16:45~17:00	15'	질의-응답, 끝인사	행정동 205A

참여 약대생의 수만큼 높은 직책의 약사 선배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가벼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해 주시려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다들 부담없이 공직 약사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고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질의 응답이나 들었던 설명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공직 약사, 특히 식약처에 관심을 가지는 약대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몇가지 적다면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중 800명이 약사. 그 중 50%가 식약처에 근무한다 (가장 많은 비율). 이 외에도 특허청, 국과수, 교도소, 보건소 등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다. 부처는 다를지라도 직급 체계라던가 보수는 비슷하다.
2. 약사로서 고위공직까지 올라갈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다.
3. 보통 약무직과 보건연구직으로 나뉘어지고,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또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한다. 전자는 인사처 주관으로 3차에 걸쳐 1년간 진행되고, 후자는 식약처 주관으로 2차에 걸쳐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된다. 약무직은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보건연구직은 약사 뿐만 아니라 관련 경력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경쟁률이 다소 높다. 또한 연구직은 석사가 필수이다.
4. 식약처 지원에 나이 제한은 없었다.
5. (공직 약사에 대해 실습으로 접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식약처를 5, 6학년의 실습기관으로 하기에는 여러 논의가 필요해서 당장은 불가하다. 하지만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는 실습을 진행중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약대생이 궁금해 하였던 연봉은 예상한만큼 적은 수준이라고 답변하셨다. 그러나 빠르게 바뀌는 세상속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guide line을 만들고, 이에 대한 규제와 법, 지원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하셨으며, 실제로도 다들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국가 의약품 정책에 관심이 있고 평가나 관리에 흥미가 있다면, 또는 공직 약사에 대해 알고 싶은데 정보를 알기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식약처 투어에 꼭 참여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상상 그 이상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신다!